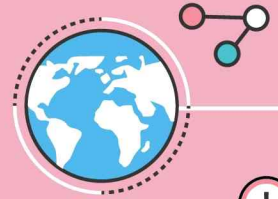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석유·가스, 러시아·일본】 러시아 푸틴 대통령, 사할린2 자산의 무상양도 대통령령에 서명

【경제, 중국】 중국 6월 PMI 50 상회 → 닉 달 만에 '경기 확장' 국면 진입

【코로나, 중국】 중국 안후이성 코로나19 확산 → 공급망 혼란 재발 가능성 우려

【화물운송, 중국】 중국, 1~6월 화물 발송량 19.5억톤

【물류, 미국】 美 서부 항만 컨테이너 적체 증가로 수수료 부과 가능성

【공급망, 한국】 우리 수입품 10개 중 4개는 공급망 취약 → 해외자원 확보 필요

【에너지, 호주】 호주, 에너지 수출액 사상 최대 수준 기록 전망

【반도체, 세계】 전 세계 반도체 호황 둔화 조짐

【항공기, 중국·인도·미국·EU】 신냉전 속에 보잉 vs 에어버스 항공기 시장 혈투

【소비자물가, 세계】 세계 주요 지역 CPI 상승률



GVC 뉴스 더하기

- 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 ② 美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에 따른 공급망 위기 전망



GVC 돌보기

미국의 對中 수출통제 (미국 수출통제 시리즈 3편)



GVC 기초상식

천연가스와 세계 천연가스 시장



GVC 전문가

김경훈(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핵심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 : 니켈'



GVC 소식통

- ① 라-우 사태,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②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③ 공급망 관련 포럼 및 상담회 개최 소식



더 찾아보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김석환 교수)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석유·가스, 러시아·일본】 러시아 푸틴 대통령, 사할린2 자산의 무상양도 대통령령에 서명**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6.30일 러 극동의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 '사할린2'의 운영을 러시아측이 새롭게 설립하는 법인에 이관하여, 현재 운영회사의 자산을 무상 양도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이 사업에 참여 중인 日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가 향후 운영 주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대두
 - 동 대통령령은 새로운 운영 주체로 러시아측이 설립하는 유한법인을 지정,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상사가 출자하는 현재의 운영 주체인 사할린에너지로부터 모든 자산과 종업원, 권리관계를 계승받게 됨
- 현 운영회사 '사할린에너지'(SEIC)는 러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 약 50%, 영국 '셸' 27.5%, '미쓰이물산' 12.5%, '미쓰비시상사'가 10% 각각 출자 → 사할린2의 LNG 생산량은 연 1,000만 톤이며 일본은 그 중 약 600만 톤, 즉 일본 전체 LNG 수입량의 약 10%를 사할린2를 통하여 조달 중
- 사할린2에서 일본 기업이 배제되면 수익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함. 미쓰이물산은 '22.1분기에 사할린2를 포함한 LNG 등에서의 순자산 감액 806억 엔, 미쓰비시상사도 사할린2로 감액 500억 엔을 기록. 추가 감액 등의 가능성은 계약의 내용에 달려있다고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언급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셸'은 2월 말에 러시아 사업 철수 방침을 표명하고, 인도의 에너지 기업 연합과 권익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에너지 기업도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함. 한편 일본 무역상사들은 주주로 사할린2 사업에 계속 참여한다는 방침이었음

출처 : 일본경제신문 등 KOTRA 일본지역본부 종합

● **【경제, 중국】 중국 6월 PMI 50 상회 → 닉 달만에 '경기 확장' 국면 진입**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50.2, 서비스업 PMI는 5월 대비 7.2p 큰 폭으로 개선된 54.3을 기록, 지난 3월 중국내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및 봉쇄조치로 경기위축 국면 진입 후 4개월 만에 기준선(50) 이상으로 회복
 - * PMI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의 수축을 의미
 - (제조업) 봉쇄 완화에 따라 생산(52.8), 신규 주문(50.4), 배송시간(51.3) 등 지수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데 반해 원자재 재고(48.1), 종업인원(48.7) 등 지수는 여전히 위축 국면
 - (서비스업) 코로나 충격으로 4월 40.0까지 추락했다가 봉쇄완화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
- 시장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고 당국이 경기부양 강도를 높이고 있어 7월에도 경기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출처 : KOTRA 베이징무역관 中國寶庫(22.7.1)

● **【코로나, 중국】 중국 안후이성 코로나19 확산 → 공급망 혼란 재발 가능성 우려**

- 지난 주말부터 안후이성(安徽省)에 8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해 중국 당국이 안후이성 쓰현(泗縣) 봉쇄 조치 시행 (7.4일 안후이성 신규 확진자는 231명 - 무증상 감염 179명 포함)
 - 안후이성 쓰현은 중국의 제조업 중심지인 장쑤성(江蘇省) 인근에 위치한 바, 장쑤성으로 코로나19 확산 우려
- 한편, 시진핑 주석은 6.28일 후베이성 우한을 방문하여 과학기술 자립자강은 국가 발전의 기반이자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으며, 동태적 제로 코로나 정책의 시행은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으로서, 잠시 경제 발전에 영향이 초래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특히 노인과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기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

출처 : 블룸버그(22.7.4), 연합뉴스 등

● **【화물운송, 중국】 중국, 1~6월 화물 발송량 19.5억 톤 달성**

- 중국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1~6월 중국의 철도 화물 발송량은 누적 19.5억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5%(1억 톤) 증가했으며, 일평균 화물 발송량 등 여러 지표가 역대 신기록을 달성
- 1~6월 철도화물 적재 차량수는 일평균 17.8만 대로 전년 동기대비 5.9%(1만 대) 증가함. 동 기간 철도를 통한 석탄 운송량은 10.4억 톤(7.9% 증가), 이 중 전력용 석탄이 6.9억 톤(9.1% 증가)
- 1~6월 중국-유럽 화물열차 운행 횟수는 7,473만 회로 총 72만 표준컨테이너를 운송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 2.6% 증가한 것으로 집계

출처 : 신화망,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등

● **【물류, 미국】 美 서부 항만 컨테이너 적체 증가에 따라 수수료 부과 가능성**

- 중국의 봉쇄 해제로 인한 해상 화물의 급증으로 미국 서부 항만의 장기 체류 컨테이너가 증가하며 수입 컨테이너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6월말 기준 LA/LB 항만 장기 체류 컨테이너는 48,932개로 2월 대비 2배 이상 증가
- 이에 항만 관계자들은 지난해 수입 컨테이너 적체 현상 해소를 위해 도입된 '컨테이너 장기 적체수수료 부과 제도'를 본격 시행할 것을 제안
 - 해당 수수료 제도는 항만에서 컨테이너가 9일 이상 체류 시 100달러를 부과하고, 이후 하루마다 100달러씩 추가 부과하는 방식
 -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발표되고 11월 중 시행 예정이었으나, 실제 수수료 부과는 연기되어 왔음
 - 그러나 현재 체류 컨테이너 숫자는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11월 15일 기준 체류 컨테이너 숫자(48,905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실제 수수료 부과가 시작될 가능성 있음
- 시장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서부 항만의 컨테이너 적체 원인은 철도 운송의 지연인 것으로 나타남

출처 : 카고프레스(22.7.1)

● **【공급망, 한국】 우리 수입품 10개 중 4개는 공급망 취약 → 해외자원 확보 필요**

- 6.30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이 발표한 '우리 경제 수입 공급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입 품목 5,381개 중 2,144개(39.8%)는 수입 의존도가 높으나 들어오는 경로가 다양하지 않아 수입 공급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량을 수입하는 석유류나 광물 등은 소수의 수출국이 글로벌 교역을 독점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주요 공급망 취약품목 중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의 비중은 29.1%로 글로벌 수준(2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급충격의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원자재와 자본재에 대해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

출처 : 한국은행 보고서를 인용한 매경, 한경 등 언론보도

● **【에너지, 호주】 호주, 에너지 수출액 사상 최대 수준 기록 전망**

- 호주 산업과학에너지부에 따르면 호주의 지난 1년 간(21.7월~22.6월) 에너지 자원 수출액은 4천50억 호주달러(약 358조원)에 달할 전망
 -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액이 700억 호주달러(약 62조원)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연료탄 수출액도 580억 호주달러(약 51.3조원)로 증가

- 그러나 호주의 에너지 원자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광석은 국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 중량이 늘었음에도 수출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1,330억 호주달러(약 117.6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

출처 : 연합뉴스(22.7.4) 등 언론보도 종합

● **【반도체, 세계】 전 세계 반도체 호황 둔화 조짐**

-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반도체 수요가 급등하며 반도체 부족 사태로까지 이어졌으나 처음으로 위축 신호가 포착됨. 개인용 컴퓨터(PC) 판매량이 하락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한 것에 따른 것임
 - 자동차나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소비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인텔과 엔비디아 등 주요 기업들은 향후 전망이 밝지 않을 것임을 경고 →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PC 출하량이 8.2% 줄어든 것으로 전망 (스마트폰 판매량 위축도 반도체 수요 감소에 일조했을 가능성)
- 이러한 수요 감소에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일부에서 나타나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될 것으로는 보지 않음. AMD의 리사 수 CEO는 서버 및 데이터센터용 칩 수요가 여전히 견조해 PC 부문 약세를 상쇄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차량용 반도체 등은 여전히 부족난이 이어질 가능성
- 현재 기업들이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하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은 상황임

출처 : 월스트리트저널(22.7.4)

● **【항공기, 중국·인도·미국·EU】 신냉전 속에 보잉 vs 에어버스 항공기 시장 혈투**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가 ‘미국·EU 對 중국·러시아’의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는 가운데 같은 편인 미국과 EU가 중국·인도의 항공시장을 두고 사투를 벌이고 있음. 중국은 최근 실시된 초대형 입찰에서 미국의 보잉 대신 EU의 에어버스를 선택해 ‘강력한 구매력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함. 인도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약 300대)의 항공기 구매가 예정되어 있음
- 7.4일 평파이 등에 따르면 중국 동방항공, 남방항공, 에어차이나는 지난 1일 ‘27년까지 유럽의 에어버스에서 항공기 292대를 사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함.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동구매에 나선 것으로 동방항공 100대, 남방항공 96대, 에어차이나 96대 등임. 계약 금액은 372억 달러(약 48조원)에 달함
-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보잉은 “지정학적 차이가 미 항공기의 (중국) 수출을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밝힘. 지난해 말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중국을 향해 대놓고 ‘민항기 추가 구매’를 요구했던 터라 보잉의 충격은 더욱 큼
- 이에 대해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보잉 737맥스 항공기는 아직 안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일갈함. 이와 관련 중국이 구매력을 활용하여 미국과 동맹국간 틈새 벌리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있음

출처 : 서울신문, YTN, 평파이 등 언론보도 종합

● **【소비자물가, 세계】 세계 주요 지역 CPI 상승률**

- 유럽 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유로존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6%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이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 이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오는 7월과 9월 기준 금리 인상 계획을 밝힘
- 우리나라도 6월 CPI 상승률이 6.0%를 기록하며, 외환위기(98.11월 6.8%) 이후 처음으로 6%대 진입

〈 주요국 CPI 상승률 〉

'22.6월	EU	8.6%
	대한민국	6.0%
'22.5월	영국	9.1%
	미국	8.6%
	프랑스	5.2%
	일본	2.1%

출처 : 한국경제, 전자신문, 조선비즈 등 언론보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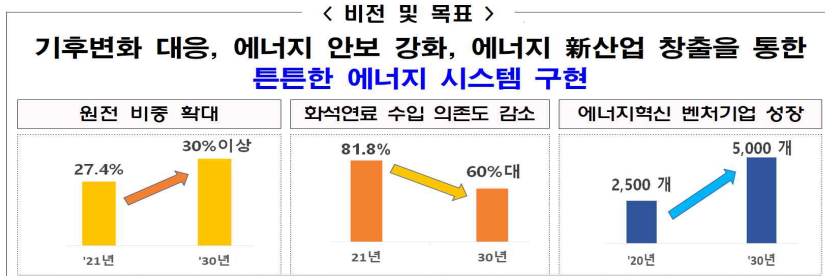
GVC 뉴스 더하기 ①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7.5(화)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함

● 수립배경 및 경과

- (배경)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고조 →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 (경과) 대국민 공청회(6.21), 에너지위원회(6.23)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 → 차관회의(6.30), 국무회의(7.5) 등 정부내 최고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정책 방향을 확정·발표

● 주요 내용



①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한을 3·4호기 건설 재개,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 → '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 ●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지역과 소통하면서 원전 내 한시적 저장시설 확충 추진
재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 여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보급 ●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균형있는 재생e 보급을 위해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 도출
석탄·L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하여 합리적 감축 유도 (노후 석탄의 LNG로 대체 등) ● 무탄소전원은 수소·암모니아 등 기술 여건을 감안하여 활용
전력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망 적기 건설,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 ●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첨단 그리드 구축, 분산에너지 관리·확산 체계 구축
②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법제정)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공급망) 전략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 추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 위한 지원	
③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효율) 3대 부문(산업, 가정·건물, 수송) 수요 효율화 혁신 →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전력시장·요금)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거버넌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	
④ 에너지 新 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 △(수소) 핵심기술* 자립, 전주기(생산·유통·활용) 생태계 조기 완비 →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부품 △(태양광·풍력)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 △(에너지신산업)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등 △(제도)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국제감축 및 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제도 선진화	
⑤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에너지 복지)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주민·지역)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안전)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GVC 뉴스 더하기 ②: 美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에 따른 공급망 영향 전망

※ 강제노동을 불공정 무역관행의 하나로 간주하는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로, 지난 6.21일부터 시행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새로운 對中 통상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음. 법 시행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존재 품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보자

●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시행 개요

- 중국 신장(新疆) 지역을 겨냥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6.21일 시행 →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이 법에 의해 식별된 특정 단체(기업)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강제노동 집행 태스크포스(FLETF)는 동 상품들의 수입 및 입항을 금지하며, 업체들은 세관에 압류된 품목에 대해 30일 이내에 소명 가능

● 공급망 리스크 下 품목들은?

- 신장産 품목 중에서 세계 생산량 비중이 높은 **의류·면화, 토마토, 실리콘**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됨**에 따라, 일부 농산물, 원자재, 에너지 부품의 국제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
 - 신장 지역은 전 세계 면화 공급량의 20%를 차지해 의류 업계는 단기간 내 원재료 조달에 난항을 겪을 전망
 - 주요 조사기관들은 토마토 페이스트(세계 공급량 25% 비중), 흙(13%), 호두(11%), 후추(8%) 등의 농산물도 UFLPA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
- 신장 지역의 주요 원자재 수출품인 **레이온(세계 공급량 10% 차지), 탄화칼슘(22%), 베릴륨(9%)**도 영향
- 또한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의 80%(신장은 중국 생산량 중 50% 기록)와 **풍력 발전 터빈의 13%를 공급**하고 있는 바, 재생에너지 업계도 타격을 받을 전망
 - 태양광 업계는 1년간 단계적으로 UFLPA 적용을 받게 되는 바, 주요 업체들은 태양광 산업의 대처 방안 주목
- 미국과 신장 지역의 무역 규모는 '20년 기준 3억 달러로 추산되나, 원재료 중심의 무역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를 고려하면 디커플링에 따른 손실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신규 공급망 구축 경쟁에 따른 일부 품목 병목현상과 이로 인한 기업이익↓ 및 소비자물가↑ 우려 (NYT)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최근 미국의 정책 동향을 고려할 때, UFLPA 강화할 가능성도 상존
 - 백악관은 '23년 300명의 관세 전문가를 신규 고용하기 위한 7천만 달러 규모의 CBP 예산을 의회에 요청
 - 베리스크(Verisk) 컨설팅은 中정부가 위구르 노동자들을 중국 전역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을 제시, 이에 따라 법안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 확대 유력 지역은 윈난(차, 담배), 산둥(마늘), 산시(석탄), 허베이(아연) 등
- 다만, 미국 내 업계의 반대와 물가상승률 인상 부담으로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
 - 중국 정부의 협조 거부로 소명 기회가 상실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책임 소재가 기업에 있다는 점과 공급망 점검·변경에 필요한 비용이 과도한 점 등으로 인해 미국 내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일부 미국 언론들은 공급망 병목 현상 및 이로 인한 물가상승률의 압박을 못 이긴 바이든 행정부가 동 법안의 적용 범위를 축소할 가능성도 언급
- 미국, EU 등 주요국의 강제노동 규제 논의 확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美 현지 비즈니스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은 **공급망 실사 및 ESG 경영 강화**를 통해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리스크 선제적 대비 필요
 - 위구르 소재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강제노동 및 소수민족의 모집·수송에 관련되거나 위구르 또는 중국의 강제노동 상황에 연루된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조달받는 기업의 생산품도 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



GVC 돋보기 : 미국의 對中 수출통제 (미국 수출통제 시리즈 3편)

※ 러-우 사태를 맞아 '22.2월말 美 정부는 수출관리규정(EAR) 개정하여 최초의 범국가 단위의 수출통제를 실시, 향후 국제 무역·기술 경쟁 상황 속에서 수출통제 제도의 역할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오늘은 3편의 시리즈 중 마지막으로 미국의 對中 수출통제 현황을 소개함

< 미국의 수출통제 시리즈 >

17호	미국 수출통제 제도
18호	對러 수출통제
19호	對중 수출통제

● 트럼프 정부 당시 본격화된 對중국 수출통제 체제

- 트럼프 정부 당시 중국의 국가 주도형 산업육성 정책에 대한 대응과 미-중 간 경제 기술 패권 경쟁 전략의 일환으로서 수출통제 체제를 본격화
 -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통한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군-민간 기술 융합 프로그램'(MCF, Military-Civil Fusion)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가 원인
- 미국 정부는 對러시아 수출통제와 같은 범국가적 수출통제가 아닌 특정 기업, 지역, 이슈(인권민주주의 등)에 국한하는 방식으로 그간 對中 수출통제를 추진해 옴

● 對화웨이(Huawei) 수출통제

-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장비 및 전자 제품 제조기업인 화웨이의 미국 5G 기술 및 네트워크 사업 진출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 ⇒ 미국 재무부 對이란 경제제재 규정 위반 혐의 및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에 근거하여 화웨이 및 68개 관계사를 상무부 Entity List에 등재 ('19.5.21일)
 - 이후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화웨이 관계사 46개를 Entity List에 추가 등재 ('19.8월)
- 화웨이와 그 관계사에 대한 EAR(수출관리규정) 규제 품목 수출은 전면 금지가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BIS는 '임시 일반 수출 면허'(TGL, Temporary 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수출 허용
 - (1) 기존 네트워크 및 장비의 운용 연속을 위한 목적
 - (2) 기존 송수신 단말기(Handsets)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서비스지원
 - (3) 기존 시스템의 사이버보안 및 네트워크 안정화 연구
 - (4) 5G 국제 기술 표준 정립에 필요한 활동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EAR의 일반금지(3항)를 개정(20.5월)하여 Entity List에 등재된 화웨이 및 관계사 대상 수출에 FDPR(해외직접생산품 규정) 적용 결정
 - 따라서,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외국산 제품이 화웨이가 생산하는 제품을 위한 부품 또는 장비로 사용되거나, 최종 사용자가 화웨이인 경우 해당 외국산 제품은 미국 당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

● 군-민간 융합 기술 통제

- 군사 최종 사용(end-use) 및 사용자(end-user)에 대한 수출통제 범위 확대
 - 미국 상무부는 군대의 최종 사용 및 사용자의 정의를 종전의 군용 제품의 사용, 개발, 생산뿐만 아니라 작동, 설치, 유지, 보수, 검사, 개선 활동으로 확대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EAR 부속서를 통해 군사 최종 사용자(MEU, Military End-User 리스트) 제도 신설(20.12월), 현재 56개 중국 기업이 동 리스트에 등재

- 민간 사용에 대한 수출통제 예외 규정 삭제
 - 그간 민간 최종 사용자(civilian end-user)에게 허용되었던 수출통제 예외 규정이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및 20여 개국(그룹 D1)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중단 (20.4.25일)
- 중국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 SMIC
 - BIS는 중국의 대표 반도체 생산기업 SMIC가 중국 군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 → SMIC 및 관계사 10곳을 Entity List에 등재 (20.12.18일)
- 슈퍼컴퓨터 기업 파이티움(Phytium)
 - BIS는 중국의 첨단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기업 '파이티움 테크놀로지'와 슈퍼 컴퓨터 관련 기업 7개를 Entity List에 등재 (21.4.8일)
 - 제재 대상 기업들은 중국 군대 및 정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혐의

● **인권 및 민주주의 수호**

-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내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 보안기업 20곳과 첨단 감시 기술 기업 8곳을 Entity List에 등재 (20.5.19일)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발효 (22.6.21일)
 -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이 법에 의해 식별된 특정 단체(기업)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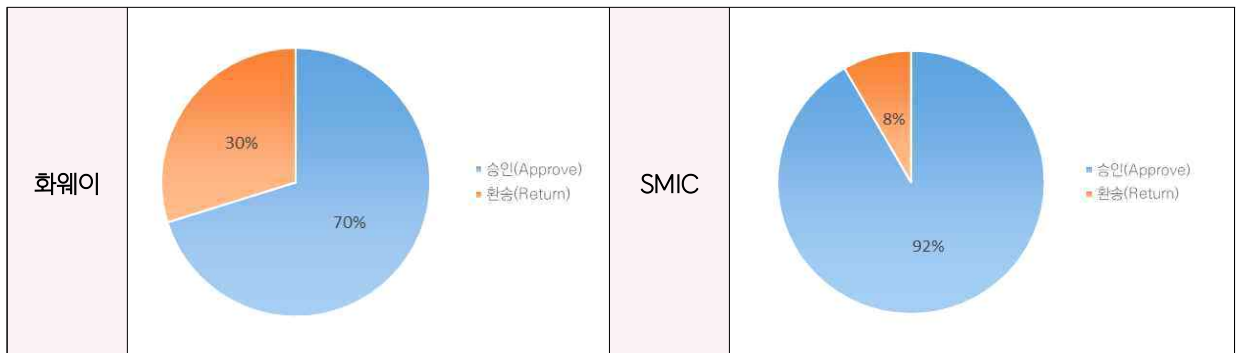
〈 미국 상무부 BIS의 대중 수출 면허 발급 통계 현황 〉

* 對中 전체 수출 면허 발급 현황 (20년)

구분	수출액 (달러)	전체 수출 대비 (%)
전체 對中 수출	1,246억	100%
非 수출통제 대상 (EAR99)	1,017억	81.6%
수출 면허 불요	217억	17.4%
수출 면허 발급	4.78억	0.4%
기타	8.72억	0.7%

→ 전체 對中 수출 중 97.9%가 미국 상무부 면허 없이 수출

* 화웨이, SMIC 대상 BIS 수출 면허 발급 (20.11월 ~ '21.4월) [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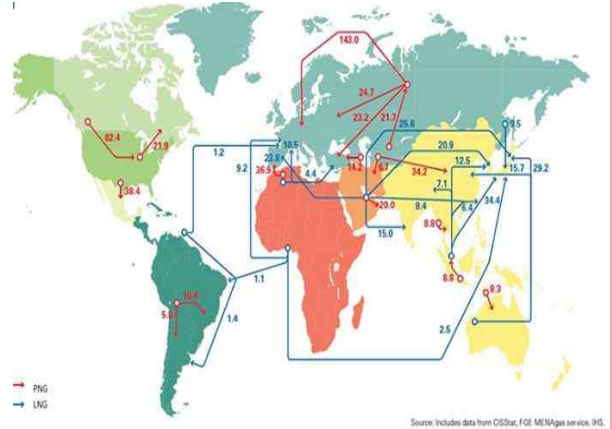
자료 : 미국 의회조사처(CRS) 및 BIS 집계자료

GVC 기초 상식 : 천연가스와 세계 천연가스 시장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음.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중에서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열 효율이 높으며 환경오염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아 효율성이 높은 천연가스와 세계의 주요 거래시장에 대해 알아보자

● 천연가스 개요

- 원유와 함께 지하 암석층에서 오랜 생성 과정 중 석유와 분리된 채 존재해 온 가연성 가스
- (종류) 저장 방법에 따라 LNG(액화천연가스), CNG(압축천연가스), PNG(배관천연가스)로 분류됨
- (특징) 연소 시 유해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연료, 수송과 보관 문제로 장기 계약, 저장·인프라 구조로 공급 비탄력적
- (생산지) ①미국, ②러시아, ③이란, ④중국, ⑤카타르 등
- * 매장량 : ①러시아, ②이란, ③카타르 ④미국, ⑤사우디, ⑥투르크멘



● 세계의 천연가스 시장

① 3대 천연가스 트레이딩 허브

명칭	HH (Henry Hub)	NBP (Natural Balancing Point)	TTF (Title Transfer Facility)
소재	미국 루이지애나	영국	네덜란드
생산	미국, 캐나다	북해,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등	
특징	미국 천연가스 배관망 집결지	가상거래 시장	가상거래 시장
	저장시설·파이프라인 시스템과의 뛰어난 연결성	가스업체 연합 유럽 2대 거래소	네덜란드 국영 유럽 최대의 거래소 * 유럽 대표 가격 지표

* 거래단위 : mmBTU (1BTU는 252cal, mmBTU는 100만 BTU)

②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천연가스) 시장

- 주요 생산지(중동·동남아·미국·호주 등), 수입은 동북아(한국·일본·중국) 비중 높음(PNG 운송 곤란)
- * -162°C로 냉각·액화하여 LNG선으로 해상 운송, 목적지 도착 후 재차 천연가스로 변환한 뒤 파이프로 공급
- 동북아 국가들의 LNG 장기계약 가격은 원유 가격에 연동되는 경우가 많음. 주로 JCC*(Japan Customs Cleared price) 지수로 구성된 산식에 의해 원유 가격에 연동되는 구조
- * 30대 산유국으로부터 수입되는 200개 이상 유형의 원유로 구성되어 시장 조작으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동북아 지역의 LNG 현물가격 지표(JKM*)도 헨리허브 가격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아시아 프리미엄)
- * JKM(Japan Korea Marker, 아시아 LNG 현물가격 지표)로 거래가격 표시

▶ 일반적인 국제 천연가스 가격 비교(아시아 프리미엄의 존재) : HH < NBP·TTF < JKM

● 천연가스 가격 영향 요인

- (주요 변수) ① 셰일가스 등 새로운 공급원 발견. ② 국제에너지(석유·석탄 등) 가격의 변화. ③ 각국의 환경 관련 규제 강화. ④ 계절성 수요
 - 비수기(4~9월)에 비해 성수기(10~3월)의 사용량이 3~5배 이상 높음
 - 겨울철 기온 1°C 하락 시, 천연가스 수요는 3.5%~5.4% 증가
- (기타 변수) ① 기상 재해에 민감(허리케인 등)→수송비용 증가, ② 여름철 보관 비용 증가, ③ 정치적 갈등 요인(예 : 최근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④ 생산국의 경제적 위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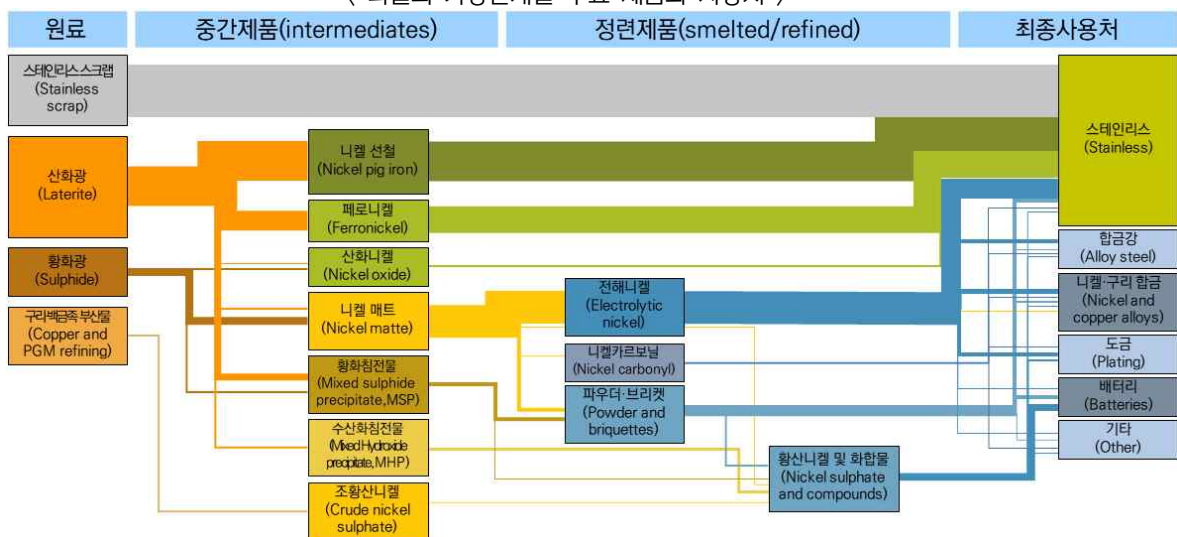
GVC 전문가 : 김경훈(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핵심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 : 니켈'

※ 니켈은 스테인리스강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삼원계 배터리의 핵심 원료임. ESG 기준에 부합하면서 증가하는 배터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니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니켈 공급망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 니켈은 합금, 도금, 특수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나 생산량의 약 70%는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사용되며, 최근 들어 배터리 제조에 쓰이는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
 -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터리용 니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등 수급 불안 우려 확산
- 니켈의 주요 생산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등이며, 최근 인도네시아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맞물리면서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
 - 니켈 원광은 크게 산화광(Laterite)과 황화광(Sulfide)으로 구분되며, 니켈 제품은 순도에 따라 Class 1(순도 99.8% 이상)과 Class 2(99.8% 미만)로 구분
 - 황화광은 캐나다, 러시아 등 주로 극지방에서 생산되는 반면, 산화광은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뉴칼레도니아 등 열대지방에서 생산됨
 - 순도가 낮은 Class 2 제품은 주로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투입되며, 최근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배터리에 사용되는 Class 1 및 황산니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중
 - 인도네시아는 자국 광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가공되지 않은 니켈 원광의 수출을 금지하고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세계 1위 니켈 생산국으로 부상
 - 인도네시아의 산화광 개발이 확대되면서 Class 2 제품을 중심으로 '22년부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나,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순도 니켈의 공급은 타이트할 전망

〈 니켈의 가공단계별 주요 제품과 사용처 〉



* 주 : 중간제품은 노란색, 저순도 제품은 녹색, 고순도 제품은 푸른색으로 표시

* 자료 : European Commission(21), Study on future demand and supply security of nickel for electric vehicle batteries

- 우리나라는 니켈 원광이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스테인리스강 생산에 사용되는 페로 니켈, 유틸리티니켈 등은 국내에서도 일부 생산 중

- 중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연계해 인도네시아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니켈 원광 채굴에서부터 배터리 및 스테인리스강 생산의 전 단계를 집적시킨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니켈 자원을 확보
- 일본은 2000년대부터 필리핀의 코랄베이와 타가니토에 대규모 광산을 개발하여 원광 및 중간제품을 자국 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니켈을 조달

● 우리나라는 니켈 기반 삼원계 배터리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배터리 전구체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

- 배터리 양극재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 생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선전하고 있지만, 그 원료가 되는 전구체는 국내 수요의 약 79%를 수입에 의존하며 수입액의 90%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양극재 수출이 늘어날수록 전구체 수입도 늘어나는 문제점

● 최근 강화되고 있는 ESG 측면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급증하는 배터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니켈을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니켈 공급망의 핵심 이슈로 부상**

- 니켈은 채굴 및 제련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 삼림 파괴, 수자원 고갈, 지역사회와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ESG 기준에 부합하는 니켈을 조달하는 것이 공급망 관리의 관건이 될 전망
 - EU는 역내에서 판매되는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신고, 재활용 원자재 사용,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이행을 의무화하는 등 니켈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예정
- 배터리에서 배출되는 차량 한 대당 CO2 5.3톤 중 양극재에 들어가는 금속 원료에서 44%가 배출되며, 그 중 니켈(NiSO4, 황산니켈)은 18%로 배터리 단일 원재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배터리 공급망의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NCM523 기준) >



자료 : Argonne National Lab, 포스코경영연구원(2021) 재인용

● **니켈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배터리, 철강 등 제조업 비중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있어 사회적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이므로, 민·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

-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자원 가격 사이클, 국내 정치환경 및 정책변화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등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구축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요망
- 국내에서도 광물, 에너지 등 공급망 상류 부문에서 메이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M&A를 촉진하는 한편, 소비가 많은 자원을 중심으로 상품거래소를 설립하여 자원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방안 추진
-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등 자원 보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 심화, 러시아산 니켈에 대한 제재 가능성, 배터리 기술 발전에 따른 원료금속의 수요변화 등 니켈 수급의 주요 변수들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 중요

GVC 소식통 ① : 러-우 사태 · 중국 봉쇄조치 관련 기업 지원 문의처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분야	지원기관	지원내용	비고
① 수출통제	전략물자관리원(www.kosti.or.kr) 러시아데스크 · 제도문의 : 02-6000-6498 / 6499 · 품목분석 : 02-6000-6496 / 6497	對러 수출통제 상세 내용 및 對러 통제품목 사양 정보 등 안내	
② 금융	금융감독원(www.fcsc.kr) ·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 02-3145-1332→6번	대러 금융제재로 인한 금융애로 접수·해소 지원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또는 상담센터(02-787-5611)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금융지원프로그램 안내 ※ 신용보증기금(053-430-4345)	· 특별운영자금 : 02 조원 · 중소기업 지원자금 : 06 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등(02-6252-3416)		· 0.5 조원 규모 지원
기업은행 영업점 등(02-729-7494)	· 0.7 조원 규모 지원		
③ 무역투자	KOTRA(www.kotra.or.kr) · 무역투자24 상담창구: 1600-7119(2 → 4)	“무역투자24” 온·오프 상담창구 운영 진출기업 동향 점검, 비상연락망 가동	
	무역협회(www.kita.net) · 긴급애로대책반: 02-1566-5114	수출입기업 대상 긴급 애로접수 창구 운영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 02-399-7204/7034/6951·1588-3884	무역보험 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무감액 연장,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
④ 공급망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소부장 수급애로·간접피해 등 기업 애로 접수 및 대응 지원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044-203-3861~2)	국내외 공급망 관련 정보 제공	산업부·무역협회·코트라 등 협업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02-6000-5754)	수출입물류 애로 접수 및 대응지원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무협·물류협·해협·HMM 등
⑤ 물류	KOTRA(www.kotra.or.kr) · 유망기업팀: 02-3460-7445/7426/7428	긴급물류 지원 사업	현지 임시 보관 및 내륙운송 서비스 지원
⑥ 법률자문	KOTRA(www.kotra.or.kr) · 해외진출상담센터 : 1600-7119(연결번호2-4)	비즈니스 애로 러시아 변호사 자문 상담	
⑦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전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	· 러-우 수출입비중 30%이상 · 러-우 진출·수출입기업 등과 거래 비중이 30%이상	·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 10억원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중국 공급망 관련

구분	담당 기관	연락처
국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 1670-7072 (대표전화)
	KOTRA 유망기업팀 '물류 현안 지원'	☎ 02-3460-7445/7430/7426
중국 현지	주중한국대사관(상무관) 및 총영사관(상무관)	☎ (+86)10-8531-0849 (대사관 상무관실)
	KOTRA 중국내 무역관(베이징 등 20곳)	☎ (+86)10-6410-6162 (중국본부, 대표전화)
	한국무역협회 중국내 지부(베이징·상하이·청두)	☎ (+86)10-6505-2671~3 (베이징지부)
	중국한국상회 및 지역한국인(상)회	☎ (+86)10-8453-9756~8 (중국한국상회)

※ 실물경제 공급망 관련 산업부-재외공관(상무관)-KOTRA(무역관)-무역협회-한국상회 등이 유기적 협업 시스템 운영 중



GVC 소식통 ② : 기업들을 위한 물류 지원 사업 안내

● [해상운송] 중소기업 철강 벌크화물 해상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포스코)

- (사업개요) ①포스코 ②벌크화물 수출 중소기업(철강 반제품류) ③포워더의 수출 화물을 합적하여 해상 운송 지원
*포스코의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을 통해 합적 운송이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 필요

〈 항차 정보 〉

출항지	도착지
포항항, 광양항 (포스코 제철소 소재지)	세계 주요 80개 항만(미주·유럽·서남아·중국·일본·동남아)

- (상세내용) 포스코 공동 "회원사 해상운송 지원사업"(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온라인 신청 : 포스코 "수출 물류 합적 플랫폼"(www.steel-n.com) → 회원가입 신청
→ 회원가입 승인 이후 화물 합적 신청
- (문의처) (사업·참가신청)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 02-6000-7617 / hjo117@kita.net
(화물 합적·플랫폼 관련) 포스코 해외철강물류그룹 ☎ 02-3457-3199 / hilee0913@poscoflow.com

● [물류보관] 수출 컨테이너 부산신항 물류센터 일시 보관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칼트로지스)

- (사업개요) 항만 CY 적치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포워더사는 신청불가)
①수출 컨테이너 보관장소 제공 ②보관료 할인(일반가격 대비 30%) ③기타 물류 업무 상담 및 지원

〈 서비스 정보 〉

	서비스 내용	여부	비고
1	수출업체 → 물류센터 화물운송	불포함	수출업체가 포워더/운송사를 통해 직접수배 필요
2	물류센터 상하차	포함	시장가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
3	물류센터 보관		
4	물류센터 → CY터미널 셔틀		

※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대상이며, 특수 컨테이너는 사전 문의 및 확인 필요
※ 정기보관 희망 시, 보관일 관련 사전 협의 필요

- (상세내용) 수출 컨테이너 부산신항 물류센터 일시 보관 지원사업(링크)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 제출(hjo117@kita.net)
- (문의처) (지원사업 문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5754/5935 / hjo117@kita.net
(물류센터 보관 및 작업 문의) 칼트로지스 「부산신항물류센터」 ☎ 051-366-8011 / hukim@calt.co.kr

● [복합운송] 유럽·러시아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한국무역협회·LX판토스)

- (사업개요) 국내 수출기업(실화주)을 위한 전용 선복 마련 *포워더사는 신청불가
→ ① 운임 할인(10~15%), ② 선복 지원(항차별 30TEU 확정 지원), ③ 실시간 가격 조회 및 이력관리 제공

〈 항차 정보 〉

해상+철도 복합운송					내륙운송	
노선	출발지	도착지	소요일	컨테이너	최종도착지	소요일
TCR	인천/평택	폴란드 말라세비치	30일	40피트 (*20피트 불가)	유럽 전역	+2~3일
TSR	부산	폴란드 말라세비치	45일	20피트·		
		러시아 모스크바	40일	40피트	모스크바 인근 지역	

- (상세내용) 유럽向 수출기업 해상+철도 복합운송 지원사업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ITA.net > 무역지원 서비스 > 무역지원 사업일정'을 통해 신청
-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화물예약데스크」 ☎ 02-6000-7617/5935 / logistics01@kita.or.kr

● [항공운송] 프랑크푸르트(독일) 수출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사업 (KOTRA·대한항공)

- (사업개요) 항공운송 부족 애로사항 지속 →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항공기 수출 스페이스 운송 증편(~22년 12월)

〈 항공 - 항차 정보 〉

출항예정일(매주)	예약 마감일	서류/화물 (입고) 마감	중소기업 전용 스페이스
수요일	화요일 17:00	수요일 12:00 이전	편당 3톤 내외
일요일	금요일 12:00	금요일 17:00 이전	

- (상세내용) [KOTRA-대한항공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안내\(클릭\)](#)를 통해 확인
* 일반 화물 대상(냉장·냉동·위험물 등 특수화물 진행 불가)
- (참가신청) [링크\(클릭\)](#) 또는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항공물류수행사 ☎ 02-310-6554

●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복 운송 지원 안내 (KOTRA·삼성SDS·CJ대한통운)

- (사업내용) 선복부족 애로사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기업이 기 확보한 정기선복의 일부를 국내 중소 수출기업에게 제공하여 적기 수출 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및 KOTRA 회원사
- (신청기간) 추후 공시 시까지 수시 접수(접수 물량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
- (서비스 노선) 출항 : 부산항 / 도착 : 하단 참조

〈 해상 - 출항 정보 〉

운송지원사	구분	가용선복(TEU/Week)	주요기항지
CJ대한통운	일본	10	도쿄, 나고야, 오사카, 고베
	동호주	5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
	북미 서안	3	(서안) 엘에이, 롱비치, 시애틀, 타코마
	북미 동안	2	(동안) 뉴욕, 사바나, 노퍽
	중남미 서안	3	(서안) 만자날로
	중남미 동안	2	(동안) 산토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타자이, 몬테비데오
	유럽	15	안트워프, 로테르담, 함부르크, 사우스햄튼, 그디니아, 르하브르
	서지중해	5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제노아
	동지중해	5	이스탄불, 이즈미트
	아프리카	5	더반, 뭌바사 ▶서아프리카 제외
삼성 SDS	중동	7	제벨알리, 담만, 소하르
	서남아	8	나바셰바, 첸나이, 카투팔리 ▶방글라데시 제외
	북미 서안	40	LA, 롱비치, 오클랜드, 시애틀, 밴쿠버
	북미 동안	10	뉴욕, 사바나
	북유럽	20	로테르담, 함부르크, 앤트워프
	지중해	10	제노아,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포스
	남미 동안	20	산토스, 이타자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아시아	20	호치민, 방콕, 람차방, 포트켈랑, 하이퐁(추가)	

- (상세내용)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안내\(클릭\)](#) 또는 [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용선복 지원 안내\(클릭\)](#)을 통해 확인
- (참가신청) ① CJ대한통운: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② 삼성SDS: [링크\(클릭\)](#) / 'KOTRA 무역투자 24 > 사업신청 > #물류/통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36



GVC 소식통 ③ : 공급망 관련 포럼 및 상담회 개최 소식

● '2022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 포럼

-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 KOTRA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재편 트렌드 대응 및 새로운 기회 발굴을 지원하고자 국내외 공급망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

• 일시 : 7월 11일(월) 14:00~16:30

실시간 중계 QR

• 온라인 현장중계 접속방법 : [YouTube KOTRA 비즈니스\(클릭\)](#) 혹은
우측 QR코드로 접속하여 실시간 중계 시청 가능



※ 오프라인 현장 참석은 기 마감

• 참고사항 : [2022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클릭\)](#)에서 세부 정보 확인 가능

• 프로그램

시간대	내용	비고
14:00-14:03 (3')	개 회 사	KOTRA 혁신성장본부장
14:03-14:30 (27')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 및 트렌드	국제경영관리학회
14:30-15:00 (30')	공급망 위기에 따른 국내 제조업 영향 및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15:00-15:30 (30')	2022 글로벌 원자재 시장 전망 및 시사점	Korea PDS
15:30-16:00 (30')	[미국/화상]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美반도체산업협회
16:00-16:30 (30')	[유럽/화상]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원자재 수요 동향	유럽금속협회

• 문의처 : KOTRA 공급망 포럼 사무국 ☎ 070-8884-6000 / kotra.pjt@gmail.com

● 일본 스마트공장 EXPO 한국 공동관 온라인 참여기업 모집

- 일본 최대 제조업 혁신 이벤트 'Factory Innovation Week Nagoya 2022'에 KOTRA는 한국기업 공동 홍보관을 구성, 우리 기업 제품의 디지털 전시 및 온라인 상담 주선과 현장 대리 상담을 무료로 지원

• 일시/장소 : 10월 26일(수)~28(금) / 온라인 (전시 자체는 포트메세 나고야에서 진행)

• 신청기한 : 7월 15일(금) 限

• 분야 : FA/로봇, IoT/AI에 의한 원격 감시, 예지보전, 시각화솔루션, 디지털트윈, 생산관리시스템 등

• 참가신청 : [일본 스마트공장 EXPO\(클릭\)](#) 세부 사업내용 검토 후 신청하기 클릭 / 1)사업신청서 작성 및 2)카탈로그, 동영상 등 기업 IR자료(일문/영문 버전) 첨부

- 디지털 전시가 가능한 콘텐츠 보유 및 일본어 자료 대응 가능한 기업 우대

• (참고사항) [Factory Innovation Week Nagoya 2022\(홈페이지\)](#) 통하여 전시 개요 확인 가능

• (문의처) KOTRA 소재부품장비팀 최영미 과장 ☎ (02) 3460-7641

KOTRA 나고야무역관 정순인 차장 ☎ (+81)-52-446-7800 / suninj@kotra.or.kr



더 찾아보기 :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김석환 교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러시아의 존재를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됨. 동 전쟁을 통해 EU·인도 등 국가의 위상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됨. 특히, 러-우 지역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러-우 전쟁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탈냉전기(1990~2022) : 중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균형을 통해 이익을 확대**
 - with 러시아 : 지정학적 연대 강화, 군사기술 이전, 산업(에너지)·군사 협력을 추진
 - with 우크라이나 :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협상력 강화에 우크라이나 활용 → 산업(방산) 및 농업 협력
 - ↳ 다양한 형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성공적으로 수행 (수호이(SU-27)용 엔진, 미그기(Mig-29)용 엔진 등)
 - ↳ 결과적으로 러-우 간 틈새를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 중국의 국산 J-20 전투기 등 제작에 도움
- **현재(두 가지 악영향) : ①중국의 기존 전략 수정 필요, ②러-우 틈새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변화**
 - ① 관련 : △중국-유럽 화물열차 서비스 중단 또는 노선변경 발생, △곡물 수입의 대체 수입처로서 우크라이나의 역할 훼손, △마리우폴 항구에 대한 투자 등 중국의 對우 경제협력 전략 수정 불가피
 - ② 관련 : 러시아로부터의 군수 기술 협력에의 악영향(우크라이나의 親유럽 또는 親나토 행보, 러시아에 대한 압박 구도 변경) → 중국의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무기 수입 및 조달 계획에 부정적 영향
 - 다만, 금번 전쟁이 중국에게 plus 요인도 존재 :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의 에너지를 소화해 줄 나라로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 △新미-중 협력이 되지 않도록 러시아로서는 중국 입장을 배려해야 하는 상황
 - 러시아에게 plus 요인도 존재 : 거대 전략적 차원이 아닌 개별 산업·기술(방산 등)에서 러시아 입지 강화
- **전쟁 후, 중국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전망**
 - 중-러 관계 : 군사기술 교류 및 미국에 대항하는 지정학적 연대의 동력은 계속 유지 전망
 - 중-우 관계 : 전쟁 이후의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 프로그램과 연관
 - ↳ 중국의 참여 문제는 서방-우크라이나 간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과 연계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러-우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경유 노선에 문제 발생 → 물류 위험↑, 보험 등 비용↑
 - 일대일로 연선 국가들에 대한 투자 리스크↑ (그 밖에 일대일로 국가들의 경기침체, 부채 증가도 진행 중)
 - 만약 미국이 러시아 철도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제재*를 가한다면, 유라시아 랜드 브릿지 전체가 대혼란 가능성 → 중국의 對유럽·지정학 전략에 일대타격 가능성
 - * 러시아 철도는 현재 이미 서방의 제재 대상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은 아님(서방의 제재는 러시아 철도회사 자체에 대한 제재이지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는 화주에 대한 제재는 아님)
 - 서방의 '러시아 철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의 도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결정타가 될 수 있는 바, 반대로 이에 대응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대응도 상상 이상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현재 중국의 태도 : ①(서방과의 관계) 친러시아적 중립, ②(러-우와의 관계) 양국간 중립**

※ (생각해보기) 서방(미국)의 '러시아 철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추가 제재는 1차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외에도 2차적으로 중국(일대일로)에 대한 단기적·중기적 최고의 제재가 될 수 있음

→ 바야흐로 우리의 시각(시야)이 아닌 강대국의 시각(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대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Korea Center for GVC) 출범 (‘22.2.9)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상시·전문적 분석 역량을 갖춘 공급망 분석 전문기관으로서,
 - ①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으로부터 수집된 주요 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심층 분석
 - ②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전파 및 대응조치를 제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지원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지원
- ‘분석센터’는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산업분석실**(무역협회 담당), **공급망 모니터링실**(KOTRA 담당) 등 3개 실을 두고, 3개 기관의 전문인력에 더하여, 업종별 협단체의 파견 인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 개최 (‘22.3.21)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및 현장 중심의 공급망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편 전(12)	개편 후(29)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3.3(목)부터 **매주 1회(목요일) 발간 중**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 형태로 메일 송부 중, 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작성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문의 및 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7. 6. 수)

[환율]

	'20.12.31	'21.12.31	'22.5.31	'22.7.1	'22.7.4	'22.7.5	전일비	'21말비
₩/US\$	1,186.30	1,188.80	1,237.20	1,297.30	1,297.10	1,300.30	+0.25%	+9.38%
선물환(NDF,1월물)	1,186.30	1,190.00	1,237.40	1,296.70	1,296.20	1,299.40	+0.25%	+9.19%
₩/CNY	166.04	186.51	185.67	193.62	193.61	194.07	+0.24%	+4.05%
₩/¥100	1,051.19	1,032.48	967.77	960.96	957.98	955.33	-0.28%	-7.47%
Y/US\$	103.34	115.14	127.84	135.00	135.40	136.11	+0.52%	+18.21%
US\$/EUR	1.2279	1.1318	1.0741	1.0456	1.0433	1.0435	+0.02%	-7.80%
CNY/US\$	6.5305	6.3681	6.6520	6.7074	6.6910	6.6942	+0.05%	+5.12%

* '21년 평균 환율: (₩/US\$)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7.4 (전일)	'22.7.5				
					전일(7.4)비	'21년최저비	'21년말비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108.40	111.10	▲2.7	▲61.1	▲34.0	
					+2.5%	+122.0%	+44.1%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109.90	114.30	▲4.4	▲27.0	▼6.5	
					+4.0%	+31.0%	-5.3%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8,036.00	7,807.00	▼229.0	▲51.5	▼1885.0
						-2.8%	+0.7%	-19.4%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431.50	2,374.00	▼57.5	▲422.5	▼432.0
						-2.4%	+21.7%	-15.4%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2,685.00	21,925.00	▼760.0	▲6018.0	▲1000.0
						-3.4%	+37.8%	+4.8%

[반도체]

	'20	'21	'22.3	'22.4	'22.5	6.30	7.1	7.4	7월(~4)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75	3.47	3.39	3.28	3.27	3.27	3.27
(%, YoY)	-21.9%	+8.0%	-11.0%	-25.1%	-23.9%	-28.6%	-28.7%	-28.7%	-28.2%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8.0	8.2	8.28	7.30	7.15	7.10	7.13
(%, YoY)	+7.0%	+32.8%	+33.9%	+34.5%	+30.2%	+9.4%	+7.1%	+6.3%	+5.8%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분	'21.12.31	'22.6.10	'22.6.17	'22.6.24	'22.7.1		
						전주(6.24)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4233.31	4221.96	4216.13	4203.27	-0.3%	-16.7%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분	'21.12.24	'22.5.31	'22.6.28	'22.6.29	'22.6.30	'22.7.1		
							전일(6.30)비	'21년말비
BDI	2217	2566	2204	2186	2240	2214	-1.2%	+0.1%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협력기관

